

금품살포·성추행 논란...여수시의회 시끌

의장 선거 금품수수 의혹 놓고 더민주-국민의당 몸싸움 폭행·성추행 고소 등 의정 마비에 지역사회 비판 거세

여수시의회가 민선 6기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살포 의혹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의정활동이 마비돼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박정재 여수시의회 의장(국민의당)의 '시의원 매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이를 저지하던 국민의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미 의원이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박 의원은 여성경찰에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4명을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진상조사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성폭력상담소 등 여수시 6개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 40여명은 지난달 30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시의회 여성의원 성추행 의원 사법처리와 의장사퇴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금품 비리도 당선한 여수시의장과 성추행 관련 의원은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여성지방의원협의회도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당은 최근 여수시의회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시민연대회의 주도로 여수지역 여성·노동 등 범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후 5시 여수시청 앞에서 성추행·뇌물비리 시의원 사퇴를 위한 시민 대책위 구성 및 성추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 같은 반발 여론에 여수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은 법적대응을 경고하며 더민주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에 이어 10일에도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의회 파행을 주도한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더민주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회파행과 관련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의회정상화를 기다려왔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본회의장에는 시 집행부 간부들과 많은 방청객들이 몸싸움을 지켜보는 공개된 상황

이었다"며 "마치 몸싸움에서 일어난 작은 신체 접촉까지, 이슈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미리 짠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성추행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도 지난 7월부터 국민의당 소속 박 의장이 민선 6기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모 의원의 지지를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금품 전달 외에도 김 의원이 휴대전화 사업을 하면서 박 의장 소유 회사 직원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혐의점을 살피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열린 하반기 여수시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 박의장이 13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서완석 의원(더민주)을 누르고 당선됐다.

여수시 10일 "이날부터 여수공항 활성화와 시민 및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10일부터 출근방면 시내버스 노선을 여수공항 내 정류소까지 경유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수시내~공항간은 총 5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이 중 3개 노선(32번, 33번, 35번)은 공항 내 정류소를 경유하는 반면 2개 노선(31번, 34번)은 공항을 들리지 않고 신풍삼거리 정류소까지만 정차해 이용객 혼란과 배차간격 과다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여수시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제주 노선 신설 등에 따라 항공수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항 내 경유 노선을 기존 3개 노선 65회에서 5개 노선 100회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항을 경유해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조정해 항공기 연착 및 하·동계 스케줄 변경 시에도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조정을 통해 여수공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이용실태 분석과 운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 여수공항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폐쇄 위기 남면 안도우체국 존치한다

주민 요구에 출장소 형태로

65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던 여수시 남면 안도우체국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출장소 형태로 계속 남게 됐다.

10일 안도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1면 1우체국' 방침에 따라 안도우체국을 남면우체국에 통합하려고 추진하던 전남지방우정청이 여수우체국 산하 안도출장소로 존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0%를 넘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다 청와대를 방문해 성사시킨 지역 일꾼의 역할이 컸다는 게 지역민들의 말이다.

550여명이 사는 안도는 2012년 2월 안도대교 건설로 금오도와 연결되면서 동고지마를 등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연간 15만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그동안 안도에 있던 농협 등 다른 기관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우체국이 유일한 금융기관이었다.

만약 우체국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금융과 민원 업무를 보려고 11km 떨어진 금오도 우학리를 찾아가야 한다. 하

지만 열악한 교통사정 등으로 고령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전남우정청과 수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마땅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우체국 문을 닫는 대신에 격일제 운영, 출장 우체국 운영 방안, 택배기능 수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심정우(56)씨가 도움을 주면서 극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 심씨는 최근 주민 대표와 이장단을 이끌고 청와대를 방문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도움을 받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상진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를 방문했다.

그는 안도우체국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수차례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여수우체국 산하 안도출장소로 존치하기로 최종 약속을 받아냈다.

심씨는 2007년부터 5년 동안 새누리당 여수를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 광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일자리의 바다' 성료

구직자 1천명·업체 50개 참여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 7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 분야 전문 취업박람회 '일자리의 바다(www.mofjob.or.kr)'를 개최했다.

지역의 청년과 구직자에게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수급의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는 1천여명의 구직자, 해양수산 공기업과 일반 기업 등 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동원산업,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날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열었다.

또 기업과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한 열린 채용 오디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등 부대행사도 열렸다.

이와 함께 자기소개서 등 취업서류 작성부터 면접 기술과 모의 면접 등 면접 방법을 전수하는 다양한 행사도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로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사이에 만남의 장을 마련해 청년실업을 구제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개월간 여수 달군 '2016 낭만버스커' 막 내려

449팀 1089회 거리문화공연 17만여명 밤바다 낭만 즐겨 내년 국제 버스킹 축제 개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여수를 뜨겁게 달군 '2016 낭만버스커 여수밤바다 거리문화공연'이 이순신광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4월부터 지난 9일까지 25주간 매주 금·토·일요일 진행된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에는 버스커 449팀 874명이 출연해 1089회의 공연을 펼쳤다. 올해 낭만버스커 거리문화공연의 관람객수는 지난해 15만여명보다 13% 증가한 17만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MBC에브리원과 함께 여수밤바다 거리

문화공연을 TV 예능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하며 여수가 '버스커 메카도시'임을 전국에 알렸다는 평가를 얻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존 버스킹 공연과 함께 '제1회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여수의 브랜드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공항 경유 시내버스 5개 노선 100회로 증회

여수시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제주 노선 신설 등에 따라 항공수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항 내 경유 노선을 기존 3개 노선 65회에서 5개 노선 100회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항을 경유해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조정해 항공기 연착 및 하·동계 스케줄 변경 시에도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조정을 통해 여수공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이용실태 분석과 운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 여수공항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여수~제주 항공편 30일부터 운항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부터 여수~제주 구간 항공편 운항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동계 스케줄 변경에 맞춰 여수에서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편을 매일 1회 운항할 예정이다. 현재 항공편 운항이 없는 요일에 여수에서 제주를 방문하려면 정기 운항편이 개설된 인근 도시로 이동하거나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여객영업 담당 김영현

사무는 "이번 여수~제주 구간의 정기편 운항은 제주 왕래가 잦은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스케줄 편성으로 노선 확충을 통한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해 서로 윈윈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제주 구간 정기편 예약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1588-8000)와 홈페이지(www.flyasia.com),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진월·효천지구 초입구 사거리

SH SH BUILDING

광주 남구 행암동 699번지 **전용률 83%**, 대지면적 **1,826.90㎡**, 지상 **4층**, 주차장 **36대**

임대·분양

진월지구,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 중심지, 빗고을 CC 노인건강타운과 **전남대병원**,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1층	금융, 약국, 의료, 커피숍 안경(입점확정), 호프, 식당	2층	의원, 커피숍, 스킨케어샵 치과, 학원, 사무실
3층	패밀리레스토랑, 요가, 의원 휘트니스 등, 학원, 사무실	4층	496㎡, 한식,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4층 테라스 무로사용가능(150평)

땅지분 상가지분 각 상가 개별기기 가능 준공필

(062)676-4006 · 010-5681-4015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중합건설(주)**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초당요양병원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정성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서비스

-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
- 친절함 믿음의 병원

복지프로그램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환자의 정서 및 육체적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호서비스

- 간호인력의 24시간 간호 서비스 제공
- 투약관리 및 지도
- 호스피스(임종간호)

치매 / 뇌졸중(중풍) / 호스피스 / 당뇨 / 고혈압 / 각종노년성질환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초당요양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생남1길 97-2

☎ (061) 453-4300
FAX (061) 453-1119